

7 칼빈은 자본주의의 창시자인가? : 베버 논지에 대한 재평가

박경수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사

1. 시작하는 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이라는 제목으로 1904~1905년 처음 출판된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의 논문들은 20세기 내내 끊임없이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베버는 자신의 글에서 논쟁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특별히 칼빈주의 전통이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이에 대해 그는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그의 중요 논지는 프로테스탄티즘이 근대 자본주의의 발생에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베버는 특히 칼빈주의가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근대 산업과 자본주의가 로마가톨릭 지역이나 루터주의를 배경으로 한 나라들이 아니라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

잉글랜드,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베버의 이와 같은 주장은 즉시 다양한 분야에 속한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가설이 사회학, 경제학, 역사학, 종교학과 같은 여러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은 베버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수정하여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주장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베버의 주장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이들의 논평은 종종 베버의 의도나 방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베버의 의도는 프로테스탄티즘과 근대 자본주의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는 것 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관념이 경제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먼저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타난 논지가 무엇인지를 밝힌 다음, 그의 논지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칼빈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그런 다음 베버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과 그의 보다 폭넓은 저작인 「종교사회학」(*The Sociology of Religion*)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베버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2. 베버의 논지

사회학자로서 베버는 무엇보다 서구문명의 합리성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서구문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서구문명을 만들어 내었는지에 주의를 기울였다. 특별히 그는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 나타난 합리성의 근원을 추적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를 “합리적인 자본의 기획을 통해 부단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것”¹⁾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근대 자본주의는 서구문화 안에서 “자유로운 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자본의 체계”²⁾ 위에 근거한 것이었다. 베버는 이와 같은 합리적인 자본주의가 왜 서구사회에서만 발생했는지를 묻고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영향력을 하나의 개연성 있는 대답으로 제시하였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서구 문명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합리주의 정신, 즉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시도였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 안에 있는 종교적 관념(idea)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종교적 관념들이 근대 자본주의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일련의 경제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베버에게 있어서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종교적 관념은 루터의 ‘직업소명’ 사상과 칼빈의 ‘예정론’ 개념이었다.³⁾ 베버에 따르면 루터는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시켰고, 세속적인 활동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이 직업소명 사상은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파들의 중심 사상이 되었다.⁴⁾ 직업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함으로써 루터는 세속적인 삶을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루터는 여기서 더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이 새로운 사상 안에 잠재되어 있는 막대한 경제적인 함의와 가능성을 인식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다.⁵⁾ 오히려 루터의 직업소명 사상은 칼빈주의적 청교도주의 안에서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으로 꽃을 피웠다. 베버에 따르면, “이 세상에 대한 청교도들의 진지한 관심, 이 세상 안에서의 삶을 자신들의 과업으로 받아들이는 청교도들의 태도는 중세 저술가들의 글에서

1)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Talcott Parso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6), 17.

2) *Ibid.*, 21.

3) Richard L. Means, “Weber's Thesis of the Protestant Ethic: The Ambiguities of Received Doctrine,” *The Journal of Religion* Vol. XLV, No. 7(January 1965), 6.

4)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80-81.

5) *Ibid.*, 85.

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⁶⁾ 따라서 베버는 세계 내적 금욕주의(this-worldly asceticism)의 보다 유력한 근원인 칼빈주의와 청교도 분파들에게로 관심을 기울였다.

직업소명 사상과 더불어 근대 자본주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중요한 종교적 관념은 칼빈의 예정론 교리이다. 베버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 자신을 선택된 자로 여기고, 마귀의 유혹에서 비롯된 모든 의심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야말로 절대적인 의무가 된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의 결여는 부족한 신앙의 결과이고 그것은 불완전한 은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강렬한 자기 확신에 이르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서 세상 안에서의 직업 활동이 권고되었다. 이런 세상 안에서의 활동만이 종교적 의심을 씻어 내고 은총의 확실성을 제공한다.⁷⁾

이렇게 하여 칼빈주의자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선택받았음을 보여 주는 표시로 간주되었다. 예정론은 청교도 윤리의 교리적인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흔히 경건주의로 알려진 금욕적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⁸⁾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청교도의 윤리성을 요약적으로 전해 준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다른 방법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당신에게 제시해 주셨는데도 당신이 그것을 거부하고 보다 적은 이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목적들 가운데 하나

6) *Ibid.*, 88.

7) *Ibid.*, 111-112.

8) *Ibid.*, 125, 128.

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 그분이 요구하실 때 그분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기를 거절하는 행위이다. 당신은 욕욕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도 괜찮다.⁹⁾

백스터의 이러한 주장은 신약성서의 달란트 비유에 대한 주석에서 나타난다. 신실한 종은 주인이 맡긴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남김으로써 큰 상급을 얻었다. 이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성서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직업 활동을 통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칭찬할 만한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의 의무에 대한 강조는 특히 소비와 사치를 금하는 가르침과 협력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칼빈주의와 청교도 분파들 안에서 직업소명설과 예정론은 근대 자본주의 정신을 위한 에토스를 제공하였다.

3. 베버 논지에 대한 비판들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 미친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력에 대한 베버의 견해는 많은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1909년 독일의 펠릭스 라흐팔(Felix Rachfal)은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보다 더 오래된 제도이고, 무엇보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베버의 논지를 비판하였다.¹⁰⁾ 많은 역사학자들은 자본주의 정신이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는 라흐팔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9) *Ibid.*, 162.

10) Robert Green ed.,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The Weber Thesis and Its Critics* (Boston: D. C. Heath and Company, 1959), viii.

독일의 경제사가인 베르너 쾰바르트(Werner Sombart)도 자본주의는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태도와 관습에서 유래되었으며, 따라서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피렌체의 성 안토니노(St. Antonino), 시에나의 베르나르(Bernard)와 같은 중세 시대의 학자들이 오히려 17세기의 청교도들보다 자본주의를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¹¹⁾ 쾰바르트는 기존의 통설과 달리 “재산과 그것의 획득에 관한 후기 스콜라 신학자들의 견해, 특히 고리대금에 관한 그들의 견해는 자본주의 정신의 성장에 장애물이었다기보다는 실제로는 대단한 정도의 추진력을 제공하였다.”¹²⁾라고 주장한다. 중세 가톨릭교회에 의한 고리대금업의 금지가 화폐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주의 정신의 확장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는, 일견 역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종교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기보다 오히려 가톨릭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언제나 자본주의에 적대적인 입장을 지녔고, 특히 자본주의적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자본주의는 세상적인 것이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삶이란 내세의 삶을 위한 준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본주의는 미움과 비난을 살 수밖에 없다. …… 종교개혁 운동은 내면적인 생활에 자극을 주었고, 형이상학적인 열망을 강화시켰다. 결과적으로 자본

11) Werner Sombart, “The Role of Religion in the Formation of the Capitalist Spirit,”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ed. Robert Green, 32. 쾰바르트는 베버보다 앞서 1902년 출판한 자신의 「근대 자본주의」(*The Modern Capitalism*)에서 이미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지도적 원리로 그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부른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베버도 쾰바르트에게 진 빚을 인정하고 있다.

12) *Ibid.*

주의는 종교개혁의 교리들이 퍼져 가는 데 비례해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¹³⁾

이처럼 쾰바르트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 정신의 발달에 기여했다기보다 해를 입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프로테스탄티즘이 영향을 미쳤다는 베버의 논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베버의 논지에 대한 비판들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와 관련된 것이다. 영국의 경제사가인 리처드 토니(Richard H. Tawney)는 자본주의 정신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칼빈주의의 독특한 역할에 대한 베버의 강조는 프로테스탄티즘과 근대 자본주의의 폭넓은 관계를 설명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토니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비록 종교개혁이 사회적 및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종교사상의 전통적인 견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또한 대부분의 개혁자들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사실상 16세기 금융 자본주의의 확장과 더불어 일어난 경제행위에서의 혁신들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윤리라는 주제에 관한 교리적인 발전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지닌 것이었다.¹⁴⁾

토니에 따르면 칼빈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발생에 있어서 유일한 원인이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17세기 잉글랜드의 청교도주의가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토니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며,

13) *Ibid.*, 34.

14) R. H.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ed. Robert Green, 40.

흔히 말해지는 것처럼 청교도주의의 산물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정신은 후기 청교도주의의 어떤 견해들 안에서 그 에너지를 분발시키고 이미 존재하는 강력한 기질을 강화시키는 강장제를 발견하였다.”¹⁵⁾ 라고 말함으로써 베버의 논지를 일부 인정하는 동시에 그 단순성을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교회사가인 윈스롭 허드슨(Winthrop Hudson) 또한 베버의 과도한 단순화를 비판하였다. 허드슨은 베버뿐만 아니라 토니조차도 역사적 운동으로써의 칼빈주의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버가 16세기의 칼빈주의와 17세기의 청교도주의를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졌다고 보았다.¹⁶⁾ 허드슨에 따르면 베버가 자신의 논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청교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리처드 백스터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긴 했지만, 사실 백스터의 전체적인 사상은 베버의 논지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오히려 백스터의 글들에 나타나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맘몬을 반대하는 강력한 정신이다. 백스터는 하나님과 맘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과 맘몬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늘과 땅을 혼합시켜 행복에 이룰 수 있다고, 이 세상을 최선의 것으로 사랑하면서 동시에 천국을 최후의 예비품으로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만일 당신의 배(腹)가 당신의 하나님이 되고 세상이 당신의 천국이 된다면, 그것들을 섬기고 추구할 것이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말라. 외견상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며 부와 명예를 최상의 것으로 삼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면으로써 탐욕스러운 세속적 정신을 가리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그들은

15) *Ibid.*, 48.

16) Winthrop Hudson, "Puritanism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ed. Robert Green, 56-57.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으며, 거룩한 이름을 횡령하여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¹⁷⁾

백스터에게 있어서 부와 세속적인 성공은 결코 하나님의 선택의 표지가 될 수 없었다. 백스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세속적인 번영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이기느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으려는 사탄의 유혹일 가능성이 더 높다. 허드슨은 베버가 의도적으로 백스터의 글들로부터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이 보이는 문구들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함으로써 과도한 단순화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고 지적한다.

베버의 논지에 대한 보다 심각한 비판은 영국의 경제사가인 로버트슨(H. M. Robertson)에게서 비롯되었다. 1933년에 출판된 그의 책 「경제적 개인주의의 등장에 관한 국면들」은 “막스 베버와 그 학파에 대한 비판”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로버트슨은 베버의 글이 역사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로버트슨에 따르면 청교도의 소명 이론이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¹⁸⁾ 따라서 베버가 소명 이론을 16세기에 투사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로버트슨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청교도주의는 결코 새로운 종교운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하였다. 로버트슨은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청교도들이 주장한 교리들 중에 특별한 것은 전혀 없었다. 청교도의 교리들은 모두 가톨릭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었고, 자본주의 정신을 고무시킨 교리들은 결코 청교도와 칼빈주의의 분파들만의 것이 아니었다.”¹⁹⁾ 라고 주장하였다.

로버트슨에 따르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본주의는 종교개혁 시기보

17) *Ibid.*, 58-59.

18) H. M. Robertson, "A Criticism of Max Weber and His School,"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ed. Robert Green, 74.

19) *Ibid.*, 76.

다 오히려 중세 시대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연속성이 있다. 그는 칼빈주의보다 프란체스코파 수도회나 예수회가 자본주의에 보다 우호적이었다고 주장한다.²⁰⁾ 뤼티(Herbert Lüthy) 또한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 근거하여 베버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베버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이윤추구를 들었는데, 뤼티에 따르면 “제네바에 대금업을 도입한 것은 칼빈이 아니라 그보다 한 세기 반이나 빠른 가톨릭 감독 파브리(Felix Fabri)였다.”²¹⁾ 이는 자본주의가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중세 가톨릭 세계에서 태동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로버트슨의 중심 주장은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사회윤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는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영적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요소였다고 강조하였다. 로버트슨은 “나는 자본주의 정신이 종교적인 충동에서보다는 문명의 물질적인 조건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²²⁾ 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로버트슨은 소명이나 예정론과 같은 종교적인 관념들보다는 과학적인 부기(簿記)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복식 부기 없는 자본주의란 생각할 수도 없다. 양자는 형식과 내용처럼 서로 굳게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그 자신의 힘을 활성화시키는 도구로 복식 부기를 만들어 낸 것인지 아니면 복식 부기가 그 자신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신으로부터 자본주의를 처음 만들어 낸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이다.²³⁾

로버트슨은 역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베버의 논

지를 비판하였으며,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종교적인 요소보다 물질적인 조건을 더욱 강조하였다.

베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격은 역사학자이자 북유럽 인문주의와 종교개혁 연구의 전문가인 알버트 하이머(Albert Hyma)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이머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베버의 논지를 비판하면서 베버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막스 베버도, 그의 유명한 추종자(에른스트 트릴치)도 칼빈의 삶과 사상에 대해 철저하게 연구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 루터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이 파악하고 있던 개념에 대해 매우 이상한 견해가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²⁴⁾ 하이머는 잘 알려진 칼빈학자인 에밀 두메르그(Emile Doumergue)의 권위에 의지하여 베버를 계속해서 공격하였다.

에밀 두메르그는 그의 탁월한 칼빈 전기 제5권에서 어떻게 막스 베버처럼 서구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높이 존경을 받는 학자가 칼빈주의자들의 정신을 그토록 왜곡하고, 예정론 교리와 그 사회적 결과에 대해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²⁵⁾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는 것과 관련된 가톨릭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이론을 검토한 후에, 하이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오늘날 실제로 교회사나 신학에 대해 아무런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부 연구자들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허황된 이론들을 짜내고 있긴 하지만, 양심적인 역사가라면 초기 프로테스탄티즘의 본래적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때 그는 프로테스탄트

20) *Ibid.*, 69, 83.

21) Richard L. Means, “Weber’s Thesis of the Protestant Ethic,” 3.

22) H. M. Robertson, “A Criticism of Max Weber and His School,” 67.

23) *Ibid.*, 80.

24) Albert Hyma, “The Economic Views of the Protestant Reformers,”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ed. Robert Green, 95.

25) *Ibid.*, 96.

신자들이 소위 '자본주의 정신'을 고취시키기는커녕 그 길에 수많은 거침돌들을 쌓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또한 초기 프로테스탄티즘이 중세 가톨릭이든 근대 가톨릭이든지를 막론하고 가톨릭 사상보다 덜 진보적이었다고 추론하는 것도 역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하이머의 공격의 핵심은 경제적 행위에 관한 프로테스탄티즘의 가르침은 결코 진취적이지 않았고, 따라서 프로테스탄티즘이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베버의 논지와 주장에 대해 이루어진 다양한 반대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자본주의는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둘째로 베버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 줄 만한 사례들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른 경우에는 애써 무시했다. 예를 들어 그는 가톨릭 지역에서 나타난 합리적인 자본주의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사실상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은행제도는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융성했다.²⁷⁾ 셋째로 베버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주는 이상적인 인물로 17세기 잉글랜드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를 제시했는데, 사실 윈스롭 허드슨이 지적한 것처럼 백스터는 베버의 주장에 꼭 들어맞는 인물이 아니다. 넷째로 예정론 교리가 세상에서의 직업을 통한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의 논리성이 취약하다. 휘티가 말한 것처럼, 예정론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했다는 베버의 논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연약한 부분이다.”²⁸⁾ 다섯째로 칼빈과

26) *Ibid.*, 99.

27) 베버 논지에 대한 로마가톨릭 측의 반응은 Michael Novak, *The Catholic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 The Free Press, 1993)을 참조하라.

칼빈주의자들은 차이가 있는데, 베버는 그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칼빈의 사상은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했고, 오히려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주장했다. 칼빈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항상 우선시하였다. 토니가 지적한 대로 칼빈의 사상은 자본주의보다 오히려 기독교사회주의에 더 가깝다.

4. 칼빈은 자본주의의 옹호자였는가?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칼빈주의와 근대 자본주의 사이의 ‘선택적 친화력’(an elective affinity)에 대해 언급한 후, 사람들은 종종 칼빈과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베버는 칼빈이 아니라 칼빈주의와 근대 자본주의의 연관성을 주장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베버가 칼빈의 사상을 다루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 그가 다룬 것은 17세기 리처드 백스터로 대표되는 청교도적 칼빈주의이며, 이것은 칼빈의 사상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신학자가 아니었던 베버는 청교도에 미친 재세례파의 영향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백스터가 신율법주의(Neo-Nomianism)로 경도됨으로써 칼빈의 사상을 적절하게 대변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하였다.²⁹⁾ 또한 청교도주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노동하기를 원했다면, 칼빈에게 노동이란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

28) Herbert Lüthy, *Le Passé Présent : Combats d'idées de Calvin à Rousseau* (Monace : Éditions du Rocher, 1965), 21.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Richmond : John Knox Press, 1971), 194에서 재인용.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일상적인 노동에 서가 아니라 회심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였다.

29) W. Stanford Reid, “John Calvin, Early Critic of Capitalism(II) :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Reformed Theological Review* 44(1985), 10.

가도록 해 주고, 품위 있게 살게 해 주며,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게 해 주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다시 말해 노동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자아를 성취하도록 만들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다.³⁰⁾ 이와 같이 청교도와 칼빈 사이에는 노동에 대한 이해에도 차이가 있었다.

베버는 어쩌면 프랑스어를 읽지 못했기 때문인지 칼빈의 저작들을 직접 읽고 다루지 않았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각 주만 100쪽에 이르는데, 그 방대한 분량 중에서 칼빈을 언급한 것은 단 한 차례뿐이다. 결국 베버가 자신의 책에서 분석한 것은 칼빈의 사상이 아니라 후대 칼빈주의자들의 사상이었으며, 이 점은 베버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³¹⁾

그렇다면 칼빈과 자본주의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칼빈 이전에 이미 유럽에 등장했다는 데 동의한다. 리드(W. Stanford Reid)는 칼빈과 자본주의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에서 칼빈은 결코 자본주의의 창시자나 옹호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새로운 질서의 창시자나 옹호자라기보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던 질서에 대한 비판자”였으며, “제네바의 칼빈주의는 자본의 축적을 옹호하기보다는 가난에 대해 비판하였다.”라고 주장한다.³²⁾ 칼빈은 자본주의의 창시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서가 가르치는 사랑과 정의의 법칙에 따라 자본주의를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당시에 팽배하던 불공정하고 부당한 관습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굳이 칼빈의 사상을 자본주의와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착취적이고 자유방임적인

30) André Biéler, *L'humanisme social de Calvin*, trans. Paul T. Fuhrmann,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47.

31)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탐구하는 것은 칼빈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칼빈주의라는 점을 명백하게 이야기해야만 하겠다.”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220, n7.

32) W. Stanford Reid, “John Calvin, Early Critic of Capitalism(I):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Reformed Theological Review* 43(1984), 77, 79.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입각하여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옹호하는 ‘성서적인 자본주의’³³⁾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분명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자유방임주의 방식의 경쟁적 자본주의 이론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면, 칼빈의 주장은 성서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칼빈은 재산에 대한 사적인 소유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공적인 이익과 관련될 경우에는 국가가 사적인 소유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는 이유도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이다. 이처럼 칼빈은 직업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이 근면, 검약, 신중과 같은 덕목에 대해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는 부의 획득에 한계를 두고자 하였으며, 주어진 부를 어떻게 사회적 공익을 위해 선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인 급진적 개인주의는 칼빈의 사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칼빈의 사회윤리의 중심에는 개인의 자기중심적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참살이(well-being)가 자리 잡고 있다.³⁴⁾ 이런 점에서 볼 때 개혁주의 전통의 신학 사상이 20세기 기독교사회주의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칼빈이 착취적인 자본주의를 고안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적 책임경제(socially responsible economy)라는 개념 안에서 약자와 가난한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였다는 것은 이자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잘 드러

33) C. Gregg Singer, “Calvin and the Social Order or Calvin as a Social and Economic Statesman,”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ed. Jacob T. Hoogstr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9), 241.

34) Ulrich H. J. Körtner, “Calvinism and Capitalism,” *John Calvin's Impact on Church and Society 1509-2009*, eds. Martin Ernst Hirzel and Martin Sallman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170.

난다. 앙드레 비엘레(André Biéler)에 따르면 칼빈은 이자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몇 가지 유보조항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돈을 빌려 주기 위해서 자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자연적 정의와 황금률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넷째,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의 가치보다 많은 것을 남겼을 때에만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 다섯째, 세상의 관습이나 부당한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관습을 평가해야 한다. 여섯째, 공적인 이익이 사적인 이익보다 앞서야 한다. 일곱째,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³⁵⁾ 이처럼 칼빈은 정의와 사랑의 법칙에 모순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자를 허용하였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준 경우에는 이자가 아무리 세상의 법에서는 합법적일지라도 사랑의 법칙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쳐 정의의 법칙에 위배되므로 잘못된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언제나 성서가 말하는 사랑과 정의의 법칙이 우리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칼빈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칼빈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하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시도이다. 개혁주의 사상은 복음의 빛 아래에서 성서의 정신에 어울리는 사회와 경제체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 기준에 의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판하는 것이다. 개혁전통은 아투어 리히(Arthur Rich)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전망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에 기초한 인류의 윤리를 지향한다. 리히에 따르면 경제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35) André Biéler, *La pensée é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 trans. James Greig,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2005), 406-407.

경제윤리에서 근본적인 주제는 무엇이 인류에게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모든 경제제도와 활동의 근본적인 목표도 인간의 삶에 대한 봉사이다. 이런 관점에서 리히는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 economy)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socialist planned economy)가 아닌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를 바람직한 모델로 제안한다.³⁶⁾ 사회적 성격을 띤 시장경제를 개혁전통이 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의 사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비엘레에 따르면, 칼빈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공산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비엘레는 칼빈의 사상을 '사회적인 개인주의'(social personalism) 혹은 '개인적인 사회주의'(personalist socialism)라고 규정한다.³⁷⁾

5. 베버 논지에 대한 재평가

베버의 주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살피는 동시에, 종교에 관한 그의 사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담고 있는 「종교사회학」을 고려해야만 한다. 먼저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타난 베버의 논지를 정당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 맥락 안에서 그의 본래 의도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³⁸⁾ 이 시점에서 필자는 베버가 살았던 시대의 마르크스주의적

36) Arthur Rich, *Business and Economic Ethics: The Ethics of Economic Systems* (Dudley, MA: Peeters, 2006). Ulrich H. J. Körtner, "Calvinism and Capitalism," 173에서 재인용.

37) André Bié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27, 62.

38) Hartmut Lehmann, "Ascetic Protestantism and Economic Rationalism: Max Weber Revisited After Two Generations," *Harvard Theological Review* Vol. 80, No. 3(1987): 307-320. 이 논문에서 레만은 베버 논지의 근원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을 제시한다. 레만에 따르면 베버는 베르너 쾰바르트의 「근대 자본주의」, 게오르크 옐리네크의 시민권에 관한 연구, 독일에서의 문화투쟁의

전통이라는 배경에 주목하고자 한다. 베버의 시대에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종교적 형식과 교리들이 경제적인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베버 또한 종교적 관념과 윤리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들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종교가 경제제도 안에서 하나의 창조적인 원천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방법론의 유용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으려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이다. 경제가 모든 사회현상들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대하여, 베버는 다양하고 다각적인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베버는 주로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 미친 종교적 관념들의 역할에 집중하였다. 베버도 종교적 요인이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유일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최종적이고 결론적인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전체적인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예비적인 탐구일 뿐이었다. 베버 자신도 책 마지막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프로테스탄트 금욕주의가 그 발전과 특성에 있어서 사회적 제반 조건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점도 더 연구되어야 한다.”³⁹⁾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연구를 보완하는 진전된 연구의 필요성을 이미 자각하고 있었다.

사실상 베버는 유물론적 결정론뿐만 아니라 정신주의적 결정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이 일방적인 만큼, 정신적인 요인만을 강조하는 해석도 일방적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정신주의적인 역사문화 해석

분위기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

39)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183.

으로 유물론적인 해석을 대체시킬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단지 베버가 의도했던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결정주의가 결론적이고 최종적인 주장일 수는 없고, 오히려 정신과 사상과 관념이 경제와 사회체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베버는 결코 프로테스탄티즘과 근대 자본주의 사이에서 단순한 인과적 관계를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자본주의 정신이 오로지 종교개혁의 일정한 영향의 결과로서 태동될 수 있었다든지, 혹은 경제제도로서의 자본주의는 종교개혁의 산물이라는 식의 어리석고 교조적인 주장을 하려는 의도를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 …… 단지 우리는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자본주의 정신의 질적인 형성과 양적인 팽창에 종교적 영향력이 작용하였는지, 작용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본주의적 문화의 어떤 구체적 측면들을 종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⁴⁰⁾

베버의 의도는 프로테스탄티즘과 근대 자본주의 사이의 직접적이고 인과적인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 관념이나 사상이 경제제도를 규정하는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사이에 존재하는 ‘선택적 친화력’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다. 에프라임 피쇼프(Ephraim Fischhoff)가 지적한 것처럼, 만일 베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베버의 논지를 자본주의의 발전에 칼빈주의가 미친 필연적인 인과적 영향력을 밝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모두 베버를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다.⁴¹⁾ 따라서 베버의 논지를 과도한 단순화라든지

40) *Ibid.*, 91.

41) Ephraim Fischhoff, “The History of A Controversy,” *Protestantism and*

혹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하는 대부분의 주장들은 사실상 베버의 원래 의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로버트슨, 허드슨, 하이머와 같은 역사학자들의 비판도 베버의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자들과 달리 사회학자인 베버는 비교 분석적 연구를 위해 '이념형'(ideal type)을 사용하였다. '자본주의자'나 '칼빈주의자'와 같은 이념형 개념들은 구체적 사례들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한 가늠자로서 연구자들을 돕는 분석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사회학자들은 사물의 일반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실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피쇼프의 언급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

베버의 논지에 대한 대부분의 비난들은, 심지어 최근 십 년 동안 나온 글들에서조차도 대부분 베버 이론을 오해하거나 단순화시킨 데서 비롯되었다. 베버는 그와 같은 비난에 대해 별로 책임이 없다. 분명 베버는 자신의 세대에서 법학과 경제학의 역사에 관한 한 최고의 석학이었다. 그는 자본주의의 기원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정신적 견해의 변화와 경제적 과정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베버를 비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관심의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그의 목표의 온건성이나 과정의 신중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극히 소수의 비판자들만이 베버의 주장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베버의 오류나 단점들이 그의 특별한 방법론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였다. 또한 베버의 방법론을 공격한 몇몇 사람들도 사회과학의 본질과 사회과학에 적합한 방법론에 관한 그의 저술들에 대해 무지한 채로 비판을 일삼았던 것이다.⁴²⁾

베버는 독일 역사주의가 지닌 개별적이고 특수한 접근 방식에서 벗

Capitalism, ed. Robert Green, 112.

42) *Ibid.*

어나고자 이념형의 개념을 발전시켰다.⁴³⁾ 베버는 만일 누군가가 논란 중인 현상을 특수화시켜 버린다면, 그 사람은 관련된 현상들과 비교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이념형은 비교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분야의 학자들은 베버의 본래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보다 그의 주장을 일반화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예를 들면 로버트슨은 베버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의 발생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보다 과학적인 부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하지만 베버 역시도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부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 점을 언급하였다.

자본주의적 기획에 대한 근대의 합리적 체계는 그 발전에 있어서 두 가지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없이는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첫째로 가정 경제로부터 상업의 분리는 근대적 경제생활을 전적으로 좌우하는 요소이며, 둘째로 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합리적인 부기이다.⁴⁴⁾

베버의 의도와 방법론을 고려할 때 우리는 베버의 논지를 단지 근대 자본주의의 발생에 미친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인과적 영향을 추적하려는 노력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사이에 '선택적 친화력'이 있음을 보여 주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베버의 견해는 그의 책 「종교사회학」에 의해 보완된다.

「종교사회학」에서 베버의 주된 관심은 종교와 사회경제적 행위 사이

43) Lewis A. Coser, *Masters of Sociological Thought*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1), 223.

44)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21-22.

에 존재하는 상호관계였다. 그의 임무는 “사회적 행위의 특수한 유형에 대한 조건과 효과들을 탐구하는 데”⁴⁵⁾ 있었다. 베버는 종교와 사회적 행위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종교 혹은 마술적 요소들에 의해 유발된 가장 초보적인 행위의 형태들은 이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 그러므로 종교적 혹은 마술적 행위나 사고는 일상의 목적지향적인 행위의 범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특히 종교적 혹은 마술적 행동들의 목적조차도 주로 경제적인 것이다.⁴⁶⁾

어떤 사람이 삶 속에서 처해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도외시키고서 그의 종교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종교를 제외하고서는 그의 삶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종교적 실체는 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만, 종교 또한 사회적이며 개인적인 삶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제시하였던 논지를 「종교사회학」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는 여전히 경제적 사고와 제도에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이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누구든지 경제적 합리주의와 기업가 정신을 위한 일종의 윤리적 재가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를 찾아가야만 할 것”⁴⁷⁾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전히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과 근대 자본주의 사이의 친화력을 강조하였다.

서유럽과 동유럽 모두에서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과 분파주의의 모

든 형태들에 의해 윤리적 종교와 합리적 경제 발전(특히 자본주의) 사이의 긴밀한 결합이 이루어졌다. ……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경제적 합리주의와 엄격한 윤리적 종교를 내세우는 어떤 분파들 사이에 존재하는 친화력을 입증하고자 할 따름이다.⁴⁸⁾

금욕적 프로테스탄트 분파들에 의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획득된 부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들 중 하나가 되었고, 세속적 활동들은 오로지 프로테스탄티즘의 소명 윤리 안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획득하였다.⁴⁹⁾

베버에 따르면 종교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종교가 경제제도와 개인의 행위에 독창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베버는 종교를 사회적 변동의 한 원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종교적 사상과 이념의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념이 어떻게 인간의 행동을 형성시키는가를 설명하였다.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에 관한 논의에 종교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종교학과 사회학의 연구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것이야말로 베버가 종교사회학에 기여한 핵심적 공헌이다.

「종교사회학」에 나타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사회계층들, 특히 중간계급과 프로테스탄티즘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베버는 중간계급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의 형성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중간계급이 자신들의 독특한 경제생활의 양식을 통해,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의 발생을 위한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합리적·윤리적 종교로 기운다는 이론은 여전히 사실이다.”⁵⁰⁾ 프로테스탄티즘은 도시적 환경에서 자라났으며, 그 추종자들은 주로 기술공, 장인, 중산계급의 사람들이었다. 베버에 의하면 이런 도시 중산계급 사람들은 본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45) Max Weber, *The Sociology of Religion*, trans. Ephraim Fischhoff (Boston : Beacon Press, 1993), 1.

46) *Ibid.*

47) *Ibid.*, 42.

48) *Ibid.*, 93-94.

49) *Ibid.*, 148, 182.

50) *Ibid.*, 97.

는 종교적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⁵¹⁾ 쾰마르트나 토니와 같은 학자들도 칼빈주의의 도시적 성격을 지적한 바 있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상업인과 자본가, 높은 수준의 숙련공, 기술적으로 상업적으로 고도의 훈련을 받은 근대 기업의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⁵²⁾ 이런 이유에서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과 근대 자본주의 사이의 친화력을 주장했던 것이다.

6. 맺는말

본 논문을 통해 필자는 베버에 대한 비판들이 많은 경우, 그의 사회적 방법론이나 그의 본래 의도를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베버의 주된 목적은 프로테스탄티즘과 근대 자본주의 사이의 단순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관념이 경제사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베버의 논지는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교조적 논리에 대한 도전이었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요건이 다른 분야, 정치, 사상, 종교적 현상들을 결정하는 힘이라고 간주하였지만,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가 칼빈주의적 청교도주의의 종교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보여 줌으로써 경제결정론에 반격을 가하고자 하였다. 베버는 종교와 사회사상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은 인정했지만, 사상이 단지 물질적 조건의 반영일 뿐이라고 보는 견해는 거부하고자 하였다. 베버는 유물론적 결정론이든 관념론적 결정론이든 일방적인 견해는 거부하고 다원적 상호작용의 이론을 중시하였다. 「종교사회학」과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베버는 종교적 관념과 사회경제적 조건 사이의 상호

51) *Ibid.*, 95-99.

52)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35.

영향력과 상대적 자율성을 주장하였다.

최근 스틱켈베르거(Christoph Stückelberger)는 인터넷 구글(Google) 검색 통계와 출판 현황을 제시하면서 칼빈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아시아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⁵³⁾ 특히 아시아에서 이런 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원인으로는 사회주의가 해체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점, 종교적 가치와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아시아의 유교사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일고 있는 점, 경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문화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는 점 등이 작용하고 있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구체적인 사실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얼마간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프로테스탄트주의가 사회와 경제의 합리화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것과 종교사상이 경제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은 베버의 공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베버의 논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만하다.

논의를 매듭짓는 이 시점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개혁교회 전통에서 있는 사람들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제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개혁교회는 오늘날의 자본시장경제를 승인할 수 있는가? 2004년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열렸던 제24차 세계개혁교회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총회가 “아크라 신앙고백-경제와 창조세계의 정의를 위한 계약”을 발표한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아크라 신앙고백은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비판하면서, 세계경제의 불의와 생태계 파괴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임을 분

53) Christoph Stückelberger, “Calvin, Calvinism, and Capitalism: The Challenges of New Interest in Asia,” *John Calvin Rediscovered*, eds. Edward Dommen and James D. Brat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122-123.

명히 하였다. 아크라 신앙고백은 “우리는 인간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경제체제, 즉 모든 창조물을 돌보지 아니하고 모두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사유화하려는 어떤 경제체제나 이념도 거부한다.”라고 선언한다. 또한 “우리는 경제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그것은 창조세계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아크라 신앙고백은 가난하고 주변화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특혜를 수반하는 ‘은총의 경제’(economy of grace)를 말한다. ‘은총의 경제’란 사회 안에서 가난하고 약한 지체들이 더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이것이 성서가 가르치고 칼빈이 주장했던 정의와 사랑의 법칙에 근거한 경제제도일 것이다. 이 ‘은총의 경제’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현실화할 것인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다.

주제어

칼빈, 베버,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 은총의 경제
Calvin, Weber, Capitalism, Protestant Ethic, Economy of Grace

참고문헌

- Bendix, Reinhard. *Max Weber : An Intellectual Portrait*. Garden City : Doubleday & Co., 1960.
- Biéler, André. *L'humanisme social de Calvin*. trans. Paul T. Fuhrmann.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Richmond : John Knox Press, 1964.
- _____. *La pensée é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 trans. James Greig.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Geneva : World Council of Churches, 2005.
- Burrell, Sidney A. “Calvinism, Capitalism, and the Middle Classes : Some

- Afterthoughts on an Old Problem.” *Journal of Modern History* 32(1960) : 129-41.
- Cooper, John W. “Capitalism and the Protestant Ethic : Max Weber's Enduring Thesis.” *Brethren Life and Thought* Vol. 32(Winter 1987) : 33-40.
- Coser, Lewis A. *Masters of Sociological Thought*.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1.
- Douglass, Jane Dempsey. “Calvin's Relation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 *Church & Society* 74(1984) : 75-81.
- Fischhoff, Ephraim. “The History of A Controversy.”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ed. Robert Green : 107-14.
- Giddens, Anthony. *Capitalism and Modern Social Theory : An Analysis of the Writings of Marx, Durkheim, and Weber*.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Graham, W. Fred.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Richmond : John Knox Press, 1971.
- Green, Robert ed.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 The Weber Thesis and Its Critics*. Boston : D. C. Heath and Company, 1959.
- Hall, David W. and Matthew D. Burton. *Calvin and Commerce : The Transforming Power of Calvinism in Market Economies*. Phillipsburg, New Jersey : P & R Publishing, 2009.
- Hudson, Winthrop. “Puritanism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ed. Robert Green : 56-62.
- Hyma, Albert. “The Economic Views of the Protestant Reformers.”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ed. Robert Green : 94-106.
- Körtner, Ulrich H. J. “Calvinism and Capitalism.” *John Calvin's Impact on Church and Society 1509-2009*, eds. Martin Ernst Hirzel and Martin Sallmann. 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 159-74.
- Lehmann, Hartmut “Ascetic Protestantism and Economic Rationalism :

- Max Weber Revisited After Two Generations.” *Harvard Theological Review* Vol. 80, No. 3(1987) : 307-20.
- Lüthy, Herbert. *Le Passé Présent : Combats d'idées de Calvin à Rousseau*. Monace : Éditions du Rocher, 1965.
- Marshall, Gordon. *In Search of the Spirit of Capitalism : An essay on Max Weber's Protestant Ethic Thesi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 Means, Richard L. “Weber's Thesis of the Protestant Ethic : The Ambiguities of Received Doctrine.” *The Journal of Religion* Vol. XLV, No. 7(January 1965) : 1-11.
- Novak, Michael. *The Catholic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 The Free Press, 1993.
- Poggi, Gianfranco. *Calvinism and the Capitalist Spirit*. Amherst :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3.
- Reid, W. Stanford. “Jean Calvin : The Father of Capitalism?” *Themelios* 8(1983) : 19-25.
- _____. “John Calvin, Early Critic of Capitalism :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Reformed Theological Review* Part I 43(1984) : 74-81 ; Part II 44(1985) : 9-12.
- Rich, Arthur. *Business and Economic Ethics : The Ethics of Economic Systems*. Dudley, MA : Peeters, 2006.
- Robertson, H. M. “A Criticism of Max Weber and His School.”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ed. Robert Green : 65-86.
- Singer, C. Gregg. “Calvin and the Social Order or Calvin as a Social and Economic Statesman.” *John Calvin : Contemporary Prophet*. ed. Jacob T. Hoogstra.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59 : 227-41.
- Sombart, Werner. “The Role of Religion in the Formation of the Capitalist Spirit.”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ed. Robert Green : 29-38.
- Steeman, Theodore M. “Max Weber's Sociology of Religion.” *Sociological*

- Analysis* Vol. 25(Spring 1964) : 50-58.
- Stückelberger, Christoph. “Calvin, Calvinism, and Capitalism : The Challenges of New Interest in Asia.” *John Calvin Rediscovered*. eds. Edward Dommen and James D. Bratt. Louisville : Westminster/John Knox Press, 2007 : 121-31.
- Tawney, R. H.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ed. Robert Green : 39-55.
- Weber, Max. *From Max Weber : Essays in Sociology*. trans. and ed. H. H. Gerth and C. W. Mill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 _____.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Talcott Parsons.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56.
- _____. *The Sociology of Religion*. trans. Ephraim Fischhoff. Boston : Beacon Press, 1993.